

# 그라운드 휘젓는 '젊은 피'... KIA 4강 꿈꾼다



마운드 '깜짝 활약' 정해영  
김선빈 공백 메우는 김규성  
'고졸 루키' 홍중표·박민...  
신예 성장에 팬들 환호

극적인 시즌 '젊은 피'들의 활약도 KIA 팬들을 웃게 한다.

시즌 전 KIA 타이거즈의 4강 싸움을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상위권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던 KIA지만 지금은 4강 키를 쥐고 있다.

타이거즈 첫 외국인 사령탑 윌리엄스 감독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즌, 줄부상 속에서도 극적인 경기가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 순위 싸움에서 '신예 선수'들의 성장세도 지켜볼 수 있어 KIA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2020시즌이다.

마운드에서 정해영이 '깜짝 활약'으로 주목받았고, 김선빈의 부상 공백 속 김규성이 팬들을 웃게 한 또 다른 자원이었다. 홍중표와 박민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KIA의 '고졸 루키'다.

특히 홍중표는 몇 차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경험과 자신감을 동시에 쌓고 있다.

홍중표는 지난 7월 7일 1군에 처음 등록됐다. 그리고 11일 말소되면서 첫 1군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다.

1군 데뷔는 대수비로 했다. 7월 8일 KT와의 경기에서 4-6으로 뒤진 9회초에 최원준을 대신해 2루수로 자리했다. 장성우의 솔로포 뒤 삼진 두 개, 3루수 라인드라이브로 이닝이 종료되면서 조용히 그의 데뷔전이 끝났다.

그리고 하루 쉬고 10일 홍중표가 다시 그라운드에 올랐다. 이번에는 홍중표에게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8-8로 맞선 연장 11회말 1사 1·2루에서 홍중표가 최형우를 대신해 2루 대주자로 투입됐다. 그리고 대타 최원준의 중전 안타가 나오면서 모든 이들의 시선은 홍중표의 발로 향했다.

전진 수비에, 중견수는 강건의 박준태였다. 홍중표는 전력 질주로 간발의 차로 먼저 홈 베이스에 도착했다. 홍중표의 세이프가 확정된 순간 마침내 경기장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극적인 득점은 만들었지만 타격 강화 차원에서 김민식이 등록되면서 홍중표는 7월 1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홍중표가 8월 7일 다시 콜업을 받았다.

8일 대주자로 프로 세 번째 경기에 나선 홍중표는 이날도 득점을 기록했다.

0-2로 뒤진 7회말 1사에서 터커의 솔로포가 나왔다. 최형우의 헛스윙 삼진 뒤 나지완의 안타가 나오자 홍중표가 대주자로 투입됐다. 김민식의 안타로 3루까지 향한 홍중표는 유민상의 좌중간 2루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김민식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KIA는 이날 3-2 역전승을 이뤘다.

그리고 자신의 7번째 경기 날이었던 8월 14일, 홍중표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날 홍중표는 2루수 겸 8번타자로 처음 선발 출장을 했다. 그리고 3회 선두타자로 나와 데뷔타석을 맞았다. 첫타석에서 중전안타를 기록한 홍중표는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내야안타로 멀티히트까지 기록했다.

1회 수비에서 실수는 했지만 선배들의 격려로 이내 평정심을 찾고 신인다운 패기로 경기를 펼쳤다. 그 결과 홍중표는 이날 대선배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 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홍중표는 "처음에 수비 실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긴장이 풀렸다. 너무 긴장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하자고 맘먹고해서 잘했던 것 같다"며 "수비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인도 봐야 하고 공격도 해야 하고 수비도 잘해야 하니가 처음에 갈피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첫 선발 경기날을 돌아봤다.

타석에서도 서보면서 '진짜 야구하는 기분'을 느낀 막내. 팬들 앞에서의 플레이도 '진짜' 프로를 실감하게 했다.

홍중표는 "팬들이 있다는 게 좋았다. 긴장도 더 되고 업도 되고 그런다"며 "1군에 오래 안 있었는데 있는 동안 팀이 많이 이겼다. KIA랑 잘 맞는 것 같다"고 웃었다.

신인답게 패기로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게 홍중표의 목표다.

홍중표는 "선배들이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줘서 '죽을 안 들고 있을 게 뭐 있냐'는 패기로 했다.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신다"며 "그라운드를 휘젓는 선수, 까다로운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확대 엔트리 앞당겨

5명 늘어난 33명 등록

프로야구 판이 커졌다. 18일부터 확대 엔트리가 시행되면서 한 번에 46명의 선수가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올 시즌 KBO리그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더블헤더 특별 엔트리, 서스펜디드 경기 등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확대엔트리에 특별 규정이 적용됐다. 선수단 운영 쪽을 넓히기 위한 확대엔트리(33명) 적용 시점이 기존 9월 1일에서 2연전 일정이 시작되는 8월 18일 로 앞당겨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늦은 개막과 빠듯한 일정으로 인한 선수단의 체력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18일 선수들을 대거 콜업했다.

최대 5명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KIA는 이진영·최정민·고장혁·김명찬·김현수를 동시에 엔트리에 등록했다.

KIA는 외야수 이진영과 함께 내·외야 소화가 가능한 최정민과 고장혁으로 야수진의 활용도를 높였다. 좌완 김명찬과 김현수로 불펜 전력도 강화했다.

또 전날 말소 선수 몫까지 6명을 새로 등록한 NC까지 대부분의 구단은 5장의 엔트리 카드를 모두 활용했다.

롯데와 키움에 세 명을 추가했고, SK는 4명을 더하면서 이날 1군에 합류한 선수는 모두 46명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성적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젊은 피' 고졸 신인 내야수 홍중표. 연합뉴스

# 류현진·김광현 함께 웃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7일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의 캠던 야드 오리올 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 중 1회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현진 6이닝 1실점 호투 '시즌 2승'... 토론토 7-2 승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3)이 시즌 두 번째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성공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18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 6이닝 4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특히 5-1로 앞선 7회말을 앞두고 교체되기 전까지 86개의 공을 던지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류현진의 활약에 토론토는 7-2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류현진은 시즌 5번째 등판에서 시즌 2승(1패)째를 수확했다. 또 평균자책점(ERA)을 4.05에서 3.46으로 끌어내려 시즌 첫 3점대에 진입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한 류현진은 다시 한번 에이스로서 기대에 부응했다.

류현진은 올해 첫 2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으나 지난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전(5이닝 무실점), 12일 마이애미 말린스 전(6이닝 1실점)을 이어 이날까지 최근 3경기에서 압도적인 피칭을 했다.

류현진이 볼티모어를 상대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시즌인 2013년 4월 21일(6이닝 5실점) 이후 처음이다.

올해 볼티모어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팀 타율 4위, 장타율 2위 등을 달리는 강타선을 자랑하지만, 이날 류현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류현진은 1·2회말 안타 1개만 허용하며 견고하게 마운드를 지켰다.

토론토 타선은 3회초 랜들 그리치의 홈런 등으로 견고하던 볼티모어 선발투수 알렉스 코브를 흔들며 4점을 쓸어 담았다.

류현진은 3회말 삼진 2개를 뽑아내며 삼자범퇴로 볼티모어의 추격을 막았다.

하지만 4회말에는 선두타자 앤서니 산탄데르에게 우익수 오른쪽 2루타를 허용하고, 1사 후 페드로 세베리노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아 1점 내렸다.

류현진은 침착하게 다음 타자 팻 발라이카를 병살타로 잡아내며 볼티모어의 흐름을 끊었다.

5회말 삼자범퇴를 장식한 류현진은 6회말에는 1사 1루에서 산탄데르를 병살타로 처리해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앞선 타석에서는 산탄데르에게 안타 2개를 맞았지만,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병살타로 설욕했다.

토론토는 6회초 2사 1, 2루에서 그리치의 적시타로 1점 추가했고, 9회초 비지오의 좌중월 ছگی 2점 홈런 등으로 7-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메이저리그 선발 데뷔 김광현 3.2이닝 1실점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첫 선발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광현은 1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 3.2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 안타 3개와 볼넷 3개를 내주고 1실점 했다. 삼진은 1개를 잡았다.

3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은 김광현은 팀이 1-0으로 앞선 4회말 선두타자 이언 헵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이후 김광현은 두 타자를 내야 땅볼로 처리한 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존 겐트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메이저리그 첫 선발 등판을 승패 없이 마쳤다.

김광현은 투구 수 57개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스트라이크를 33개 쫓아 넣었다.

평균자책점은 9.00에서 3.86으로 낮췄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 시즌을 맞은 김광현은 7월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개막전에서 1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세이브를 챙겼다.

이후 세이브 상황이 오지 않아 등판하지 못했던 김광현은 빅리그 두 번째 경기를 선발투수로 치렀다.

긴 실전 공백 탓에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선발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최고 시속 91.6마일(약 147km)짜리 포심 패스트볼과 주 무기인 슬라이더에 체인지업, 커브를 가미해 내세웠던 중부지구 선수를 달리는 컵스 타선을 요리했다. 팀은 7회까지 진행된 더블헤더 1차전에서 3-1로 승리했다. 메이저리그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단축된 리그일정을 소화하면서 더블헤더 경기는 7회까지만 치른다. /연합뉴스